

두 증인 리빌드

The Two Witnesses Revealed

I 구원론



김 창 배 지음



두 증인 리벌드

The Two Witnesses Revealed

Part I

구원론

지음 김 창 배

두 증인 리빌드 제1권 목차 (Contents)

서문 4

제1장 두 증인 리빌드 7

두 증인 리빌드의 개요 8

제2장 두 증인의 정체 - 왕과 제사장 13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란? 14

순금 등대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 25

두 교회의 직분 - 왕과 제사장 32

제3장 두 촛대의 의미 -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37

두 촛대와 두 교회의 관계 38

변화산의 계시 -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43

제4장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 55

일곱 별의 실체 - 7000인의 후사들 56

일곱 금 촛대의 상징 - 24장로 61

두 교회의 비유 - 내 양과 다른 양 69

제5장 영원한 새 안식처 - 새 하늘과 새 땅 79

천국의 실체 80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도 - 약속의 땅 가나안 92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의 신분 96

제6장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요셉과 야곱의 족속 105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06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2지파와 12사도 111

야곱과 요셉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자손 116

제7장 요셉의 꿈과 연관된 여호와의 7절기 123

요셉의 첫 꿈 - 마지막 추수의 계시 124

요셉의 단과 연관된 봄절기의 예언 131

가을절기로 예비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비밀 138

제8장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149

영혼의 양식 - 율법과 복음 150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존재 158

요셉의 두 번째 꿈 - 왕과 제사장의 면류관 167

제9장 천년왕국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175

마지막 나팔절과 속죄절의 예언 176

천년왕국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185

초막절에 추수하는 천국시민의 정체 195

초막에 거하는 에돔 사람의 3대 후 자손들 204

제10장 하늘나라의 그루터기 - 후사와 종과 시민들 211

그루터기로 남겨둔 거룩한 씨들의 존재 212

후사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남자의 열매 218

여자의 남은 자손들 - 종의 그루터기 224

천국시민의 그루터기 - 이방 혼혈자손들 232

제11장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237

부활의 첫 열매 - 예수 그리스도 238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250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 262

영혼의 결정체 - 여자와 남자 269

제12장 마지막 백보좌심판 때 나오는 사람들 277

마지막 백보좌심판이란? 278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 283

햇불언약과 할례언약의 차이점 288

서문

2012년 8월 1일은 내 인생에 가장 감격적인 날이었다.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으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날 아침에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내 배에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라는 성령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급하게 성경을 가져와 식탁에 앉아 읽기 시작하는데 5장을 다 읽기도 전에 나는 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무게에 눌러 앉아 있기 힘든 상황이 되어 소파에 누워야만 했고 누워서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때에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에 기록된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 뜻을 정확하고도 세밀한 음성으로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열방을 회복하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계시를 풀어주는 천국열쇠라 하시고 앞으로 전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열방에 전하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열어주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성경의 구조는 여호와 의 7절기와 희년의 제도와 마지막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주기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라고 전해준 작은 책에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리고 요한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 전 3년반의 시기를 예표하는 1260일 동안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실체가 바로 말일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는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 시대에 여러 학설로 주장하고 있는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지식은 오래된 묵은 곡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두 증인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힐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물의 실체가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영원한 복음인 것이며, 일곱 샘의 줄기가 흐르는 깊은 영역의 우물을 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샘의 줄기가 모두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열어주는 천국열쇠의 핵심을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증인의 정체로 증거해 놓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신분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담아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절과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여호와의 7절기에 모두 담겨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정체와 기원이 베일에 가려져 있게 됨으로서 종말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까지 침묵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예언해서 수천 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밝혀서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하고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열방의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증인 리빌드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제 1 장
두 증인 리빌드

두 증인 리벌드의 개요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결실인 제4차 첨단 산업의 혁명으로 우주를 탐사하는 신문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성경의 역사 또한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의 결실로 맺어진 거룩한 소산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성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류 종말에 일어날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함축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신학자들의 최고 관심사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두 증인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혀서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과 또한 두 증인이 예언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증인 리벌드 책의 핵심 내용이란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한 대희년의 시대에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 등장하는 두 증인이 전하는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에 관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밝히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 안에는 창세 전에 인류 생명의 근원으로 창조한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들의 정체성과 기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

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이 담겨 있으며, 또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론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밝혀 놓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늘의 것의 식양대로 지시해서 이 땅의 성막으로 지은 성소 안뜰과 첫째 성소와 둘째 지성소의 모형이 영원한 새 안식처로 설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도라는 사실이 여호와와의 7절기에 담아 놓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들과 성소 안뜰과 첫째 성소를 구분하는 첫째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놓은 둘째 휘장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의 후사들과 종들의 특별 계층의 신분과 초막절의 성물로 남겨둔 일반계층의 천국시민들을 구별하는 하늘나라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구원론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천사가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이 세대의 시기를 정확히 열어주는 천국열쇠로 밝혀졌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구약시대에 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정한 때 끝에 일어날 이상으로 보여준 2300주야의

예언과 70이레 가운데 마지막 한 이레의 예언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전해준 책의 비밀을 풀어주는 시기로 정해 놓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대의 시기를 모두 밝혀 놓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전해준 책의 내용들의 비밀이 종말에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종말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앞으로 두 증인 리빌드 책을 통해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 안에 담아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속속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여러 종류의 생명책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책들 안에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두 증인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혀주는 성경적 근거 역시 그들의 신분이 녹명되어 있는 생명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신분의 계층에 따라 여러 생명책에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호와의 7절기에 담아 놓은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가을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비밀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공중휴거되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성도들과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구속함을 받는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신분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있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초막절의 계시는 천년왕국시대에 추수하는 초막절의 성물로 남겨둔 사람들의 신분이 녹명되어 있는 다른 생명책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7절기의 비밀이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작은 책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신학적으로 종말론의 학설로 증거하고 있는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의 학설과 7년 환난 전 휴거설과 후 휴거설과 중 휴거설과 무 휴거설의 오류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율법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기록된 작은 책의 내용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에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이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여러 생명책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이 기록된 생명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모든 민족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선교사역으로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의 이름과 신분이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을 밝혀주는 작은 책의 비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는 수많은 난제로 침묵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밝혀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하는 영적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증인 리벌드 책을 저술하게 된 목적 역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두 증인의 정체성과 기원을 입증하는 성경적 근거로 기록된 작은 책의 비밀을 모두 밝혀서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하고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오류로 실추당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제 2 장
두 증인의 정체 - 왕과 제사장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뜻깊은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켰던 첫 번째 희년의 제도가 시작된 지 대략 3,400년 만에 돌아오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고하는 복된 소식이기도 하다.

2,000년 전 새 언약의 증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언약의 말씀으로 뿌려져 있던 율법을 완성하고자 공생애 기간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셨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포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천국복음을 제자들에게 모두 가르치시고 비유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

하는 창조론과 구원론과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음을 공포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때 자신의 제자 곧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비유로 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제자들 외에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알 수 없도록 성경에 감춰 놓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여러 비유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외인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 4:11-12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복음이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난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 가는 지 침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생각나게 해 주셔야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의미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학문으로 만든 종교교리로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국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철저히 감춰 놓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천국 가는 지침서로 주신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천국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구원론에 대한 지침서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천국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증거하기를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마지막 때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모든 민족에 천국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자'라고 하였으며, 이 두 증인의 정체와 신분을 입증하고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언급하였다.

요한계시록 11:3-4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등장해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복음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결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증인 리빌드 책에서 앞으로 밝혀질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면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창조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성경적 증거를 자신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는 말씀 안에 담아 놓았다.

요한이 증거하는 자신의 두 증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요한이 천국복음을 증거할 당시 유대종교를 지키며 따르던 율법의 일꾼들과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고 따르던 복음의 일꾼들로서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요한이 권세를 주는 두 증인을 마지막 전(前) 3년반의 시기를 알리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자로 증거해 놓은 것은 마지막 추수 때 열매로 맺어지게 될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두 교회 공동체들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함이다.

그 증거로 이들이 굶은 벼을 입고 예언하는 사역으로 증거해 놓았는데, 이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열방의 교회에서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실체를 깨달은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근신하며 성도들을 깨우는 회개 사역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요한에게 받은 권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는 천사가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요한에게 전해준 작은 책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0:10-11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작은 책의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고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여기에서 요한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를 증거한 것은 종말에 일어날 7년 환난 가운데 후(後) 3년반 동안 일어나게 되는 일곱 대점의 마지막 불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세운 세상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늘나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시기를 밝혀주고자 함이다.

요한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구약시대에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은밀한 새 일이 말일에 시작되기 전에 그 비밀을 알려 주실 것을 약속하신 복음으로서, 천사가 요한에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라고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전해준 작은 책의 내용이 구약시대에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고 간수하라고 전해준 글이 담긴 책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은 책의 핵심 사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니엘의 70이레 예언 가운데 마지막 한 이레의 계시와 2300주야의 예언과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비밀을 풀어주는 천국열쇠라는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의 내용에는 영원한 새 안식처로 설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획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내용과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의 비밀이 동일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의 새 바람으로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로 증거하였다.

요한계시록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따라서 영원한 복음이란, 마지막 추수 때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달은 두 증인이 1260일간 모든 민족에 생명의 새 양식으로 다시 예언하는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율법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신구약성경을 연구해서 각 교단들이 규정해서

전하는 종교교리로서 신구약시대에 천사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전한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증거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종말의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안인 작은 책의 비밀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1260일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히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슈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모든 인류의 정체성과 신분이 녹명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밝혀주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 창조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오랫동안 침묵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추수의 계절인 대희년의 시기를 맞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누룩이 섞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내리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달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러한 누룩이 섞인 복음들이 열방의 교회에서 전해지게 될 것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고한 사

실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레위기 26:10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묵은 곡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는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율법의 계명을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이 종교교리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전해지는 누룩이 섞인 묵은 곡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를 맞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랍비, 서기관, 신학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상관없이 하늘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달아 분별하고, 종교지도자들이 교훈하는 누룩을 섞어 만든 초등학교의 종교 지식에 매여 종노릇하는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새 곡식’이란 무엇인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과 같이 마지막 때 이루어라고 약속하신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천국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 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때가 이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단에서 전해왔던 묵은 곡식이 새 곡식으로 인하여 끊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 비밀을 깨달은 요한은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자들의 정체를 1260일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으로 증거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이 선교사역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1260일로 정한 이유는 종말에 일어날 7년 환난의 시기 가운데 유대 달력으로 1년을 360일로 환산하여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사역의 중요한 시점인 마지막 ‘전 3년반’의 시기를 증거하고자 함이다.

또한 요한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의 정체를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예표해 놓은 것은 마지막 때 등

장하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온 자들인지 이들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혀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 남겨두기 위함이다.

이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자들의 실체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여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 증인이 선교사역을 하는 마지막 전 3년반의 시기를 마친 이후의 시기를 예표하는 후 3년반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두 사건을 깨달은 요한이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증거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풀어주는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다.